대한지리학회지 제40권 제6호 2005(595~612)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 이해 : 1905~1910년의 학보를 중심으로

강순돌*

An Understanding on the Geographical Knowledge of the Educated in the *HAKBO* from 1905 to 1910

Soon Dol Kang *

요약 : 이 논문은 1905년에서 1910년까지의 학보에 나타난 지식인의 지리학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위해 학회 발간의 학보에 게재된 지리학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시기는 애국계몽운동이 가장 긴박하게 일어났던 시기로서, 학회는 학보로써 국민을 계몽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던 때이다. 이 운동은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생존경쟁의 시대에 적자국으로, 우승국으로 변신을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런 노력은 학보에 묻어나고 또 거기에 실린 지리학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이 지리학은 주로 세계적 지리지식을 소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었다. 또 지리학의 연구 방법으로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 타 지역과의 비교라는 계통 지리 방법과 자연을 기술하고 난 후 인문을 기술하는 헤트너식의 지지 기술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학보에 실린 지식인의 지리학은 애국계몽이라는 목적 아래 서구의 근대 지리학을 소개하고, 또 그 지리학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지식인, 애국계몽운동, 학보, 사회진화론, 지리학 내용, 지리학 연구 방법

Abstract :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nature of the educated's geography from 1905 to 1910 by researching relevant geographical resources in *HAKBO* published by the Academic Society. At that time,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was active, and the Academic Society attempted to enlighten people, to enrich the country, and to restore the sovereign right. The educated tried to understand the reality in view of social Darwinism and make their country the winner as well as the fit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by this movement. Their effort can be seen in *HAKBO* and geography in it. The contents of geography in *HAKBO* was related to world-wide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intended to instil patriotism into the hearts of people. As their research methods, they adopted systematic geographical method by comparing between region and region, or studying relationships of the nature and human, and Hettner's regional geographical method which describes human after the nature. Hence, it is proved that the educated's geography in *HAKBO* introduced modern geography in western society for Patriotic Enlightenment and it used its geographical methods.

Key Words : the educated,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HAKBO*(an academic society's magazine), social Darwinism, contents of geography, geographical methods

*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사(Teacher,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soondols@chol.com

1. 서론

오늘날을 일컬어 세계화에 의한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구한말은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적자생존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당시 국제정세는 국가간에도, 생물집단에서와 같은 약육강식、우승열패의 생존법칙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루 바삐 부국강병의 국가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1905~1910년에 이르러서는 강대국인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 기간이었기에 우리나라가 우승국가로 변신하려는 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 이 힘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진흥하고 '식산'을 흥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국제적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또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교육 활동은 학교 교육, 신문 홍보와 학회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활동을 담아내는 장(場)으로서 학교를 개교하고, 신문을 창간하며, 학회를 조직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1905년부터 1910년 일제강점 이전의 애국계몽기이다.

개항 이후에 지리학은 지구에 관한 세계적 지식으로 대중을 계몽하는데, 특히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학문이었다. 그러나 장보웅(1976)의 연구에 의하면, 애국계몽기(1905~10)에는 일제의 간섭으로 인해 각종 학교의 지리교육이 위축되었으며, 지리교재는 있으되 지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학생 대상 애국계몽은 지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 그렇다면 의식 있는 국내、외 지식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애국계몽운동을 펼쳤을까? 당시로서는 책, 신문, 잡지 또는 강연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였으므로, 지식인들은 학회나 언론, 출판 또는 종교기관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 중에 지식인들의 모임인 학회가 발행한 '학보'[2]는 각 학회의 기관 월간지로서 신학문을 소개하는 등 지식인과 일반 독자들에 대한 애국계몽을 담당하였던 매체이다. 따라서 학보에는 당시 지식인들의 학문과 사상이 망라되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여기에 나타난 지리학을 분석하는 작업은 꽤 의미를 지니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 동안 근대 지식인의 지리학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다. 권정화(1990)와 권동희(2004)에 의한 최남선(1890~1957)의 지리학, 이은숙(1996)에 의한 김교신(1901~1945)의 지리학이 그것이다. 권정화는 애국계몽기를 포함하는 최남선이라는 한 지식인의 초기 저술에 나타난 지리적 관심을 지리학사적 관점에서 연구하였고, 권동희는「소년」지에 연재된 '해상대한사'에 나타난 최남선의 지리사상을 집중 조명하였다. 이은숙은 월간 「성서조선」제62호(1934)에 발표한 "조선지리소고"에 나타난 김교신의 지리사상과 지리학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최남선과 김교신이 한반도의 위치적 장점을 강조하여 시대의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민계몽으로서의 지리학을 펼쳤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지리학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한 지식인, 한 저술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동시대의 전반적인 경향을 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시대의 여러 지식인들의 지리학 관련 자료들을 고찰하기로 하였다. 즉 1905~1910년의 애국계몽기에 학회가 발행한 학보를 1차 자료로 삼아, 거기에 실려 있는 지식인들의 지리학 관련 기사를 분석하려고 한다.[3]구체적으로는 애국계몽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리학을 학보에 실은 목적을 알아보고, 또 지리학의 정의, 지리학의 유형과 내용, 지리학의 연구 방법 등을 고찰함으로써 학보에 나타난 지식인의 지리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애국계몽기 지리학 이해를 위한 기초

1) 사상적 배경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 이래 근대화에 성공하고 서구 열강의 지배를 모면하는 효과를 거두어, 애국계몽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그 일본이 지금 청(1895)과 러시아(1904)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미의 지원 아래 조선을 보호국화 하였다. 이러한 난국에 처하여 지식인들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현실을 파악하고, 타개책을 모색해 나갔는지 그 사상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실인식 준거로서의 사회진화론

애국계몽기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에 토대하여 개인, 집단, 인종 더 나아가 국가간의 관계를 인식하였다. 이 이론은 19세기 후반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적인 틀이었고, 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및 인종우월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04년 노일전쟁[4]을 기점으로 주변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 앞에 국권상실이라는 막다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같은 민족사적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진화론은 현실인식의 이념과 국권 수호의 논리정립 이론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5]민족의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민족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조현욱, 1995, 86). 즉 인류발전과 생존의 기본논리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에 기초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인식을 일깨워 주었다(윤경로, 1996, 110).

사회진화론은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많은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을 빌어서 서구가 문명화될 수 있었던 근원과 조선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한 행동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자 하였다(전복희, 1996, 139). 지식인들은 대내적으로는 국민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생존경쟁·우승열패의 냉엄한 현실 하에서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제국주의 침략에 대처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생존경쟁에서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즉 끊임없는 힘의 확장만이 현재의 부적자 또는 열패의 자리에서 적자 또는 우승의 자리로 부상할 것임을 강조하였다(조현욱, 1995, 88).

(2) 난국 타개책으로서의 개화사상

18세기 후반기에 꽃핀 조선 실학의 북학파는 1870년대를 기점으로 개화파로의 사상적인 전환을 하게 된다. 개화사상은 서양의 충격에 의하여 가속화된 봉건체제 해체기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의 변통사상이었다.

홍일식(1977)에 의하면, 19세기 동양에서의 개화사상은 이질문명, 즉 서양의 충격 앞에 자민족의 보존과 번영을 위한 주체의식의 사상화였으며, 이의 실현수단으로서 서양의 근대 물질·기술 문명을 수용하려는 근대 지향 의식이었다. 그는 개화라는 것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시세에 맞도록 날로 새롭게(日新又日新) 진보해 나가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개화사상이란 시대에 따라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개화사상은 1870년대부터 1890년대 중반까지는 개국·개명운동으로, 189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갑오·광무개혁으로 일컬어지는 근대화운동으로, 1900년 중반부터 1910년까지는 국권수호 내지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계몽·자강운동으로, 1910년 이후에는 항일독립운동으로 변화하여 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개화사상은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자강력과 민족정신의 배양에 초점이 있었다. 1905년 이후의 개화사상이 이처럼 자강력 배양에 중점을 둔 것은 이 시기가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되어 국권이 상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자강력이란 약하고 무능한 나라를 강하고 유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힘이었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은 교육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전복희, 1996, 138). 그러므로 이 운동이 무엇보다도 국민을 교육하여 계몽시키고 산업화를 장려하여 국가의 독립과 자립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난국 타개책의 바탕이

되었던 것은 개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개화에 힘을 실은 기독교

한말에 수용된 기독교 또한 그것이 종교적으로 갖는 의미 외에 사회개혁과 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이념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높았다. 서구 문명과 문물의 수용 통로와 신교육과 제도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했음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윤경로, 1996, 111).

1876년 개항이후 서구의 통상압력, 동학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은 구한말의 국내·외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총체적인 혼란과 위기 속에 미국과의 수교 2년 후인 1884년 개신교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개화파 지식인들은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열강의 종교인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기독교는 정치·사회·경제적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한 방책, 우승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특히 기독교는 학교 및 병원 설립에 적극적이었는데, 이 시설들의 설립은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속도로 파급되었다. 기독교는 서구의 사상과 학문을 수용하려는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통로가 되었다. 지역마다 학교 뿐 아니라 신문, 연설, 학보 등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에 기독교는 주요 촉진제였다. 기독교를 통하여야만 서구의 사상과 문물을 접하고 그것을 교육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애국계몽의 주요 통로: 지식인과 학보

전술한 바와 같이 애국계몽기에는 많은 학회가 결성되었다. 학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권회복과 애국계몽에 뜻을 두었다는 점은 공통적인 성격이다.[6] 여기서는 이러한 학회가 발간한 학보와 그 관련 문헌을 통해 지식인과 학보의 관계를 풀어보고, 또 지식인들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지식인과 학보

학보에 글을 게재한 필자들은 구한말 유학자나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거나 유학 중인 자들이었다. 즉 애국계몽운동의 주도 계층은 구한말 중인 이상의 지식인 계층[7]이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글이 아무래도 지식층을 그렇지 못한 다른 계층과 구별해 주는 주요 잣대였기 때문에 학보에 글을 실을 정도면 지식인이라 지칭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학보에 게재된 글들은 지식인의 것으로서, 세계적 사상이나 학문, 문명을 번역하고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인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야말로 학보는 지식인이 세계와 한국을 알리는 계몽 마당이었던 것이다. 학보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단체, 즉 학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 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게 하는 중요한 채널이었다.

1896년 독립협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1910년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1905년 이후에 결성된 주요 단체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헌정연구회(1905), 대한자강회(1906), 신민회(1906년), 대한협회(1907), 청년학우회(1908), 서북학회(1908) 등의 국내 단체와 태극학회(1905), 대한유학생회(1906) 등의 국외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을사조약 이후 불안해진 대한제국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결성되었던 만큼, 이 단체들의 학보는 그들, 지식인들의 애국계몽운동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애국계몽기(1905~10)에 정치활동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애국적인 지식인들은 이름은 교육·실업의 진흥에 걸어놓고 음성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통로가 바로 애국계몽운동단체였다. 특히 신민회는 비밀결사였다. 이런 각종 단체(학회)의 설립은 국권피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힘이 약한 데서 찾았던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조현욱, 1995, 54). 학회, 학교, 언론을 주요 매체로 계몽 활동을 펼쳐 나갔으며, 그 중 학회들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지에서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계몽과 실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와 출판활동을 활발히 일으켰다(김인곤 외, 1992, 65). 그러므로 학회가 발간하는 학보는 지식인들이 애국계몽사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수단이었다.

(2) 지식인의 현실 인식

지식인들은 한마디로 사회진화론에 기초하여 현실

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진화론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양계초의「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을 비롯한 저술들이 우리나라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읽히면서부터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생존경쟁、우승열패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통하게 되었다.

① 시대 및 학문 인식

이 같은 지식인들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다음과 같은 학회취지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 凡物이 孤ᄒᆞ면 危ᄒᆞ고 群ᄒᆞ면 强ᄒᆞ며 合ᄒᆞ면 成ᄒᆞ고 離ᄒᆞ면 敗ᄒᆞᆷ은 固然之理라. 矧今 世界에 生存競爭은 天演이오. 優勝劣敗ᄂᆞᆫ 公例라 謂ᄒᆞᄂᆞᆫ 故로 社會의 團體成否로써 文野를 別ᄒᆞ며 存亡을 判ᄒᆞᄂᆞ니 今日 吾人이 如此히 劇烈ᄒᆞᆫ 風潮를 撞着ᄒᆞ야 大而國家와 小而身家의 自保自全之策을 講究ᄒᆞ면 我同胞靑年의 敎育을 開導 勉勵ᄒᆞ야 人才를 養成ᄒᆞ며 衆智를 啓發ᄒᆞᆷ이 卽 是國權을 恢復ᄒᆞ고 人權을 伸張ᄒᆞᄂᆞᆫ 基礎라. 然이나 此 重大事業을 振起擴張코ᄌᆞ ᄒᆞ면 公衆의 團體力을 必資ᄒᆞᆯ지니 此ᄂᆞᆫ 今日 西友學會의 發起ᄒᆞᆫ 所以라(필자미상, 1906).

이를 보면 개화파 지식인들은 국권피탈의 근본적 원인을 힘의 약세에서 찾고 있다. 생존경쟁 · 우승열패 – 생존경쟁에서 적자는 우승이고, 부적자는 열패이므로 – 의 세계에서 강자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회를 조직하여 공중의 단결력을 길러 국민을 교육하고 계발하여야 궁극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현욱, 1995: 55). 한편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普天之下 全球之上에 億萬人生이 互相競爭者는 勢力而已라 是以로 國土와 人民이 恒常 弱肉强食과 優勝劣敗를 不免하니(大韓每日申報 1905.12.5)

또 연구생이라는 필자는 그의 글 '학문의 목적'에서 그 당시 사회 현실과 학문에 대한 가치관을 피력하고 있다.

> 文明各國에서는 學問잇ᄂᆞᆫ 人텨럼 比較的 高等地位를 占有ᄒᆞᄂᆞᆫ 者가 無ᄒᆞᆫ 고로 優勝劣敗 競爭場에 立코자 ᄒᆞᄂᆞᆫ 者 學問을 專修ᄒᆞᆷ이니 今日 뎌 專門敎育과 如ᄒᆞᆫ 거슨 分明히 人에게 職業을 敎授ᄒᆞᆷ이라 云ᄒᆞ여도 關係치 아니ᄒᆞᆯ지라. 此로써 普通敎育에 至ᄒᆞ기ᄭᅡ지 立身出世의 最高ᄒᆞᆫ 手段이라고 思ᄒᆞᆷ도 別數업ᄂᆞᆫ 順序이ᄂᆞ 世上의 父兄되신 이도 其 子弟에게 學을 修케 ᄒᆞᆷ에 當ᄒᆞ여ᄂᆞᆫ 무슴 鐵道이ᄂᆞ 會社에 資本을 ᄂᆡ는 것ᄀᆞ치 녁여 學資를 給與ᄒᆞ고 學校便으로 見ᄒᆞᆯ지라도 最先 卒業生에 立身의 途를 與ᄒᆞᆫ 者ᄂᆞᆫ 必也繁榮을 得ᄂᆞᆫ다 ᄒᆞᄂᆞ니 此ᄂᆞᆫ 分明히 我國 現今 學問界의 趨勢이라(연구생, 1908, 13).

이를 보면 문명 각국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고등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열패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적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을 입신출세하는데 있어 최고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지식인들은 당시 사회 현실을 우승열패의 국제경쟁 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문이나 교육을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현 세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인의 사명을 잃지 않고 있는 대목이 바로 다음에 나온다.

> 學問의 最大ᄒᆞᆫ 目的은 自己의 能力을 十分 發達식힘에 在ᄒᆞ니 立身出世던지 或은 社會를 益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슨 다만 此를 隨伴ᄒᆞᄂᆞᆫ 바 事物뿐이라. 根本브터 吾人 人類에게ᄂᆞᆫ 天稟의 能力이 有ᄒᆞ니 此를 十分 發達식힘이 自己의 目的으로던지 또ᄂᆞᆫ 將來 社會의 目的으로던지 當然히 ᄒᆞᆯ 바이오. 余가 只今 云ᄒᆞᄂᆞᆫ 바 能力이라 ᄒᆞᆷ은 心意에 關ᄒᆞᆫ 것뿐 아니라 體力도 其 中에 加入되난 거시니 今日 普通으로 唱論ᄒᆞᄂᆞᆫ 智育, 情育, 意育, 體育을 十分善行ᄒᆞᆷ은 卽 吾人의 能力을 十分 發達시킴이니 만일 學問의 目的이 此에 在ᄒᆞ다 ᄒᆞ면 癩癲, 白痴外에야 誰가 學問에 從事치 아니ᄒᆞᆯ 者가 有ᄒᆞ리오(연구생, 1908, 16).

왜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소 · 중 · 대학의 교육을 받는가? 대개 학문을 함으로 직업을 얻는 경로, 즉 의식(衣食)을 얻기 위해 학문을 한다고 진단하면서, 필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을 학문의 목적이라 보고, 입신출세나 사회이익 같은 것은 이 목적의 부산물이라 하였다. 인류는 각 사람마다 천품(天稟)의 능력이 있으니 이를 발달시키는 것이 자기 또는 사회의 목적임은 당연한 일이다. 능력에는 지 · 정 · 의 · 체 4가지가 있으며,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학문이라면 누가 과연 학문에 종사하지 않겠냐고 질문한다. 또한 저자가 학문의 목적을 논한 것은 학문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발흥하기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왜 학문의 발흥을 희망했을까? 각 국가는 우승열패로 판가름 나는 시대의 형국에서 우승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학문 전체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② 국가 및 인종 인식

지식인들은 학보를 통하여 근대 국가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국토, 국민, 주권을 국가의 3대 요소로 보고, 이전의 왕조 중심의 사고체계에서 벗어나는 국가 개념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위기감은 특히 이들이 국가사상 또는 국가정신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는 애국론이 풍미하던 시기였다. 그들은 신성한 국가를 보유하는 것이 국민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애국계몽기 지식인들은 국가적인 것이 여하한 형태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보다 우월하며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국가주의적 담론은 사회진화론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한편 이 시기의 인종이론들은 당시 신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국가, 사회, 민족 또는 개인 등과 같은 주요 주제 중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인종주의는 사회진화론과 맞물려 전개되면서 당시 신지식인의 사고와 운동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성진, 2003, 91~96).

이로써 생존경쟁의 단위가 바로 국가였으며, 그것도 한민족이 중심이 되는 적자 또는 우승 국가가 되는 길이 중요하였다. 이에 지식인들은 국제경쟁사회에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단결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학회 설립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식인들의 국가와 인종에 대한 사회진화론적 인식은 애국계몽을 위한 주요한 사고과정이었다.

3.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 이해

1) 지리학 개관

분석 대상이 되는 지리학 관련 자료는 학보의 기사 제목이 지리(地理), 지지(地誌), 지문(地文)인 것들이다. 유일하게 장응진(1907)의 글은 본문의 소제목이 지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해 확인된 애국계몽기 학보에 실린 지리학 관련 기사는 표1과 같다.

이와 같은 검색 기준에 의하여 8개의 학보에서 총 20편의 지리학 관련 기사를 찾았다. 필자들은 18명인데, 본명이 11명, 필명이 7명이다. 최생이라는 필명이 최남선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필명을 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본명이 확인된 필자들은 유학자이거나 일본 유학생 신분의 지식인들이다. 필명을 쓴 이들도 학보의 주체나 성격에서 본명을 쓴 이들과 신분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학해주인, 악예, 연구생, 여생이라는 필명은 태극학보,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흥학보라는 재일본 유학생들의 학보의 필자들이며, 원유객, 백양산인이라는 필명은 일제의 어용 유교학회의 월간지이지만 신학문에 관심을 표출한 대동학회월보의 필자들이어서 필명 필자들이 지식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자강회월보, 서북학회월보와 기호흥학회월보는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애국계몽단체의 월간지이고, 대한협회회보는 국민계몽이 발간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기사의 투고자들은 이 또한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학보는 학술과 논설뿐 아니라 문예 등을 게재하여 민중을 계몽하려 하였고, 또 1910년 이전에 모두 종간 또는 폐간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학보에 실린 기사들은 월간지 형식의 학술지로서 지면에 제한

이 있어 한 호가 아닌 여러 호에 연재하는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고, 이의 영향을 받아 1회에 실리는 기사의 분량도 대개 10쪽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애국계몽기 지리학에 관한 기사는 유근의 '대한지지' 와 현은의 '지지' 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구 근대 지리학의 영향을 받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장지연과 악예, 그리고 윤정하의 글은 단순한 지리학 소개라기보다는 필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지리를 논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식인들이 신학문으로서의 지리학 또는 세계적 지리지식을 국민계몽의 차원에서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소개된 지리학은 어디에서 인용된 것일까? 한 가지 단서는 한명수의 '외국지리' 에 있다. 즉 '학교 강사에게 질문한 것과 교과서에서 읽은 것을 간략하게 기술한다(한명수, 제6호, 32)' 고 하여 소개된 기사는 교과서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심의성의 '역사급지리의 개론' 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이 기사는 유길준의 저술인「서유견문」에서 인용한 것이다(허경진, 2004, 46-52).

지리학의 내용을 보면 지리학과 자연지리, 인문지리 등 분과지리학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고, 또 세계 또는 한국을 지역단위로 삼아 기술한 인문지리 혹은 자연지리, 수리지리, 지문학 등의 연구 내용이 계통 지리 방법 또는 지지 기술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학보에 실린 지리학 자료의 내용은 잡지라고 하는 매체의 성격상, 요약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기술된 것이 많았다. 즉, '지리와 인문의 관계' 는 완결된 논술이었지만, 나머지 들은 무엇인가가 빠져 있고, 도중에 게재가 중단되어 있어 완결본으로서 내용 구성이 미흡하였다.

2) 지리학을 학보에 실은 목적

학보에 지리학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필자들은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지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계몽의 글을 쓰거나 번역 · 소개하였다. '지리학 잡기' 와 '외국지리' 의 게재 목적과 장지연의「대한신지지」서문을 살펴봄으로써 지리학을 학보에 게재한 목적을 고찰하려고 한다.

대한유학생회학보 제2호(1907)에 실린 최생의 '지리학 잡기' 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 地理學이라ᄒᆞ면 古老人中或, 傳來ᄒᆞ든 風水之書와 同視ᄒᆞᆯ 者도 有ᄒᆞᆯ디 未知ᄒᆞ거니와, 此ᄂᆞᆫ 決코 靑囊赤雹之說을 査究ᄒᆞ고 玉尺金斗之書을 引照ᄒᆞ야 讀者僉彦으로 더브러 郤月覆舟之勢와 鷄棲牛眠之形을 談說코댜 ᄒᆞᆷ이 아니라 다만 吾人의 現方棲息ᄒᆞ 地球上 現象에 就ᄒᆞ야 吾人이 不可不 知ᄒᆞᆯ 事項을 記述ᄒᆞ야 姑且未悉ᄒᆞᄂᆞᆫ 人士의게 須示코댜 ᄒᆞᆷ이니, 卽靑鳥子餘流의 地埋談이 아니라 古今幾多學者가 積年討究ᄒᆞ야 精確驗算ᄒᆞᆫ 事實이니라.

이를 보면, "전래해 온 풍수와 달리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지구상의 현상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기술하여 모르는(姑且未悉) 사람에게 알리고자(須示) 한다." 고 하여 글을 실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기사는 이제 막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지식인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신학문, 즉 서구 근대 지리학을 대중에게 소개하여 계몽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또 한명수의 '외국지리' 에 보면 토양, 식물, 하천, 산맥 뿐 아니라 세계 각 대륙의 국가와 산천을 알아야만 우민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하는 5대주 지구를 요약하여 기술한다고 하였다. 즉 우민(愚民)을 계몽하여 현민(賢民)을 만들려는 의도가 이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략) 其 野에 土理가 如何ᄒᆞ니 彼花樹의 性質이 如何ᄒᆞ며 此江의 根源과 此山의 山脈이 何處로 從來ᄒᆞ야스며 亞細亞 地方은 엇더 ᄒᆞ고 歐羅巴의 諸國은 何方의 在ᄒᆞ고 亞米利加 山川은 如何ᄒᆞᆫ 것슬 不知ᄒᆞ면 其 愚氓보다 賢明ᄒᆞᆫ 것시 無ᄒᆞᆫ지라. 故로 余가 餘暇를 乘ᄒᆞ야 學校에서 講師게 聞ᄒᆞᆫ 갓과 敎科書의셔 讀ᄒᆞᆫ 바를 略記ᄒᆞ오니 愛讀ᄒᆞ심을 希望ᄒᆞ노라(한명수, 제6호, 31-32).

그리고 장지연의「대한신지지」의 서(序)[9]를 현대어로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대한자강회월보에 실은 지리학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표 1. 애국계몽기 학보의 지리학 관련 자료

지리학유형	기사 제목 (필자, 연도)	학보명(게재호, 분량)	지리학분류* (지역범위)	비 고
지리학논술	地理 (張志淵, 1906)	대한자강회월보(3호, 25-28) (4호, 26-28)(5호, 23-27)	인문지리(한국)	• 장지연의「대한신지지」(1907)에 다시 수록 • 4호는 미완
	大韓商業地理 (尹定夏, 1908~9)	서북학회월보(7호, 26-28) (8호, 20-24)	인문지리(한국)	• 상업지리학과 연계
지리학소개	地理와 人文의 關係 (岳裔, 1910)	대한흥학보(10호, 28-32) (11호, 18-25)	인문지리(세계)	• 김교신의 '조선지리소고'와 비슷 • 재일본유학생회
	敎授와 敎科에 對ᄒᆞ야 (張膺震, 1907)	태극학보(14호, 30-31)	지리학정의	• 여러 교과목 소개 가운데 지리교과 기술
	商業地理學 (尹定夏, 1908)	서북학회월보(7호, 24-26)	지리학정의	• 윤정하는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대한유학생회학보에 글 게재
	地理學雜記 (崔生, 1907)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 45-51)	지리학정의 수리지리(세계)	• 재일본유학생회 • 최생은 최남선의 필명
	大韓地誌 (柳瑾 抄譯, 1907)	대한자강회월보(11호, 55-58) (12호, 49-52)(13호, 48-49)	지지(한국)	• 잡지 출간정지로 미완
	地誌 (玄檗, 1908)	대한협회회보(1호, 36)(2호, 37) (3호, 39-41)(4호, 33-34) (5호, 32-33)(6호, 37-38) (7호, 35-37)(8호, 33-35)	지지(한국)	• 강역지
	大韓新地理學 (金夏鼎, 1908)	기호흥학회월보(3호, 29-31)	지지(한국)	• 미완
	外國地理 (韓明洙, 1907)	태극학보(6호, 31-34) (7호, 32-35)	지지(세계)	• 미완
	支那地理 (韓明洙, 1907)	태극학보(8호, 26-30) (10호, 37-42)	지지(중국)	• 미완 • 외국지리의 연속
	歷史及地理의 槪論 (沈宜性 譯述, 1907)	대한자강회월보(11호, 52-55)	인문지리(세계)	• 출처: 유길준「서유견문」 • 미완
	實業地理 (學海主人, 1908)	태극학보(20호, 38-43)	인문지리(세계)	• 재일본유학생회
	地理學 (遠遊客, 1908)	대동학회월보(8호, 30-32)	수리지리(세계)	
	地理學 (白陽山人, 1909)	대동학회월보(12호, 14-17)	자연지리(세계)	
	地文學問答 (麗生, 1910)	대한흥학보(11호, 27-31)	자연지리(세계)	• 문답형식
	地文學講談 (研究生, 1907)	태극학보(13호, 34-39) (14호, 38-40)	지문학(세계)	• 강담형식
	地文略論 (朴晶東, 1908)	기호흥학회월보(1호, 36-37) (2호, 38-39)(3호, 34-36) (4호, 29-30)(6호, 14-15)	지문학(세계)	• 한국 사항 관련시켜 기술
	地文問答 (洪正裕, 1909)	기호흥학회월보(11호, 29-31) (12호, 31-33)	지문학(세계)	• 문답형식
	地文學 (洪鑄一 譯, 1909)	대한흥학보(3호, 36-39) (4호, 32-34)(5호, 26-28) (6호, 48-52)	지문학(세계)	

*지리학의 분류에 대해서는 후술한 '지리학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것

오늘에 있어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연구할 것은 우리나라의 지리가 아니겠는가? 저 서양 학자의 말에 '지리의 학문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애국심이 나지 아니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프랑스가 독일에 패전하여 알사스, 로렌의 두 개 도시를 빼앗기고서 자기 나라의 지도에 다른 색을 칠해 전국 학자들에게 널리 인식을 새롭게 하였는바 분연히 궐기하여 수치를 씻고자 보복할 계획을 세우니, 임금과 신하들이 바라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것은 이것을 증명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학문을 논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지리와 물정만 부지런히 토론할 뿐, 정말 우리나라의 지리를 연구한 것은 극히 적고 대개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하여 지리를 가르친다 하나 완전무결한 교본이 없기 때문에 지리에 대한 상식이 퍽 희박하니, 이것은 우리들의 큰 결점이니라. …… 한 개 완전한 교과서를 편찬하려고 하였으나 …… 우리 전국 동포에게 골고루 주어 학생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애국지사의 책상머리에 놓게 함이니라. 광무 11년 6월 초열흘에 고양산인 장지연은 쓰노라.

그는 지식인들이 세계 각국에 관한 지리지식을 소개하는데 치중하여 우리나라 지리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지식을 알리려고 하여「대한신지지」를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세계지리 소개 등 대부분의 지리학이 계몽적인 의도로 학보에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한국지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동포, 학생, 애국지사에게 우리의 강역을 알려, 프랑스의 예를 거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책의 저술에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이와 같은 이 책의 저술 목적은 대한자강회월보에 게재한 장지연의 '지리' 가 이듬해에 출간된 이 책,「대한신지지」에 다시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월보의 '지리' 게재 목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한국지리에 관한 논술이나 소개 기사들은 모두 이러한 애국심 고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게재된 것들이다.[11]

게재 목적이 명시되어 있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지리학을 학보에 실은 목적은 대개 애국 아니면 계몽, 또는 애국계몽을 이루려는데 있다. 이런 게재 목적은 표1에서 보듯이 지리학 논술이 아니라 지리학을 신학문으로서 소개하는 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 계몽적 시대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글들이 계몽적 성격의 학술지인 학보에 수록된 것에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일이다.

3) 지리학의 특징

(1) 지리학에 대한 정의

'지리학 잡기' (최생, 1907)를 보면, 지리학은 이학의 한 분야[12]로서 자연지리, 수리지리(혹은 천문지리), 인문지리로 나누어진다. 지금 세상은 전문화 시대로서 지리학도 이처럼 세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리학을 지구의 표면, 각국의 광무, 인구, 산물 및 주민에 관한 사항 등을 인류생활의 방면으로서 고찰하는 것, 즉 지구에 관한 제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하고, 자연지리, 수리지리, 인문지리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지리란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천연현상을 연구하는 것, 즉 수증기계의 구별, 수륙의 위치, 형세, 광협, 분포, 수와 공기의 운동, 지구상 각지의 기후, 생물과 광물의 분포, 지구상의 변동(화산, 지진 등)의 이법 · 인과 · 관계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수리지리는 천문지리라고도 하며,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삼아 우주간 지구의 위치와 및 외지 천체간의 관계, 지구의 형상 · 운동 · 경위선, 지구상 각지의 위치 · 오대(五帶), 지도상에 나타난 지위(地位)의 측정법 등 지리학과 천문학이 서로 관련된 지리의 해설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지리와 수리지리에 지질학을 합하여 지문학(地文學)이라 부르는데, 이는 광의의 지문학이요, 협의의 지문학은 자연지리를 말한다.

세 번째로 인문지리는 지구를 인류의 주소로 간주하여 지구상의 제국민, 인위(人爲)의 구분, 각국의 인정풍속, 개화의 정도, 사회의 조직 · 활동(즉 정치, 종교,

교육, 생업, 군사, 교통 등), 물산 등을 서술하는 것으로, 정치지리와 상공지리가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중에 상업지리학에 관한 정의(윤정하, 1908)를 살펴보면, 상업적 활동에 관해 지상에 있는 자연적 상태와 경제적 사항을 서술하고, 또 이것의 관계를 연구하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한다.

장응진(1907)이 태극학보에 소개한 지리학은 앞에서 최생이 정의내린 지리학과 그 분과지리학을 모두 함축하는 간결한 정의이다. 그는 지리학을"지구 및 지구의 표면상태와 또 지구상 인류생활의 상태를 명료히 하고 토지와 인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즉 지구의 천체에 대한 관계와 지구표면상에 산재한 자연물과 그 현상, 지구상에 생식하는 생물(동식물)과 인류생활의 상태를 명시하고, 또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인적 교과와 물적교과의 양지식이 결합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최생과 장응진의 지리학 및 그 분과지리학에 대한 정의를 참고로 지리학을 분류해 보면, 지리학은 자연지리, 수리지리, 인문지리로 구성되어 있고, 인문지리는 정치지리와 상공지리로 나뉜다. 그리고 수리지리와 자연지리에 지질학을 더하면 지문학이 된다. 지리학을 이과에 속한 학문분야로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문학이라는 제목으로 학보에 게재된 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보다도 지질학과 천문학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은 지리학, 즉 지문학이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지리학이란 태양계에서 하나의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지구 자체에 관한 연구(수리지리)와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천연현상에 대한 연구(자연지리), 그리고 지구상에 거주하는, 즉 토지와 관계하는 인류의 상태에 대한 연구(인문지리)를 포함하는 21세기의 지리학의 정의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학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정의는 헤트너가 내린 지리학의 정의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즉 헤트너가 첫째 지구전체, 즉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 지구의 규모와 형태, 지구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을, 둘째 개개의 자연계(지구내부, 지각, 물, 대기, 식물, 동물)와 인류를 연구대상으로 다루면서, 지리학이란 지구 그 자체에 관한 과학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거주지로서의 지구에 관한 과학으로 정의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로보아 학보의 지리학에 대한 정의는 지식인 최생, 장응진, 윤정하 등의 일본 유학생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구의 근대지리학의 정의라 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지표면에서의 지리적 현상을 수리(天) · 자연(地) · 인문(人) 지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결과를 인간생활에 중요하게 이용하였던 실용 학문, 즉 지리학을 개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 지리학의 유형과 내용

지리학의 유형을 구분하는 시도는 기준여하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애국계몽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크게 지리학을 논술한 것과 지리학을 소개한 것으로 구분해 보았다. 지리학논술이 필자 고유의 관점에 의해 일관성 있게 지리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리학소개란 번역이든 본인의 저술이든 명확히 필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지 않고 말 그대로 소개에 중점을 둔 글을 말한다. 이에 의하면, 악예의 '지리와 인문의 관계', 윤정하의 '대한상업지리', 장지연의 '지리'가 전자의 경우이고, 나머지는 후자에 속한다. 지리학논술에서는 인문지리 내용을 한국이나 세계를 대상으로 고찰하였으며, 지리학소개에서는 지리학 정의, 지지, 인문지리, 지문학 등 고른 분야의 내용을 몇 편의 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계를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표1참조).

① 지리학 논술

악예(1910)의 '지리와 인문의 관계'에서는 지리, 즉 반도 · 도국 · 대륙과 인문의 관계를 약술하고 있다. 특히 자연 지리와 문명의 발달이라는 논지가 뚜렷하다. 먼저 반도는 수륙교섭의 요충에 해당하여 해양문화와 대륙문화의 집합소 역할을 하는 곳으로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진화에 유리하다고 하여 반도의 지리적 위치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기후가 온난한 지방이 반도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두 번째 도국(島國)은 해양에 고립되어 있어 다른 지방의 영향을 덜 받아 인문의 발달이 느리지만, 대

륙의 문화를 수입하여 인문이 발달한 나라로서 서쪽에는 영국이, 동쪽에는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여 지리적 요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혹 불리하더라도 타국가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발달시키면 문명국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륙은 반도에 비하여 고대로부터 문명의 발달이 느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서, 반도는 지형과 기후가 인류의 거주에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며, 대륙은 지형과 기후가 인류생활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예외가 있으니 대륙에 문명이 먼저 발달된 지방이다. 이 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수증기(강수량)가 많으며, 지세가 평탄하여 문명의 발달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운명은 그 지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일과 같이 경쟁이 격렬하고 세력이 팽창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 지리의 어떠함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그리스가 열강의 세력 균형자로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역사 및 지리상으로 극동존망에 관한 중심지, 즉 한반도의 지리적 형세가 세력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극동의 요충이며 중국과 일본의 교량이 되는 곳이기에 한반도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하여 필자는 전략적 중립국으로서의 역할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장지연(1906)의 '지리(一,二)' 는 우리나라의 위치(수리적 · 반도적 위치)와 경계, 면적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 역대의 강토 연혁을 기술하고 있다. 강토는 단군의 강역에서부터 기자조선, 삼한, 예맥, 옥저, 부여, 신라, 고구려, 백제의 강역까지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있다. 단군의 영역을 고문헌에 의거해 기술한 것은 한민족의 강토에 대한 인식 제고도 있지만 단군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와 조선의 강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지면관계상 다음 호에 실을 예정이었던 것 같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음 호에 실린 '지리(三)' 에서 장지연은 우리나라의 인종을 아시아의 황색인종이라고 하면서 그 기원을 9개의 부락에서 찾았다. 이후 문화가 발전하면서 각지의 이주민이 몰려와 혼잡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조선본족(朝鮮本族)은 평안 · 함경도로부터 동남 지방으로, 한족(漢族)은 중국에서 조선으로, 부여족(夫餘族)은 북부여왕이 조선동북의 해안지방(함흥~강릉)에 이주해와 지금의 인종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종은 각지에서 이주해 와 혼잡하므로 단순하게 하나의 종족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국민성이 남북간에 특이함은 없지 않으나 대개 그 천성이 유순하고 호선(好善)의 풍(風)이 있다고 한다. 또 대한의 민족에는 양반, 중인, 상민 외에도 천민계급이 있어왔지만 반상의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지연은 그의 글에서 우리 강토의 연혁을 알리고, 또 우리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부터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즉, 본토 조선족에 이주해온 한족, 부여족 등이 합쳐져 형성되었다는 것을 논술하고, 근대 계몽 의식 중의 하나인 평등을 강조하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윤정하(1908~9)의 '대한상업지리' 는 제목에서부터 인문지리적인 냄새를 강하게 풍기듯이, 실제 우리나라의 자연, 특히 지세 · 수계와 상업의 관련성을 논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위치, 경계, 광무, 인구, 그리고 기후 및 온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해 논술하고 있는 것은 '상업지리학' 에서 밝힌 바, 상업발달의 요인으로 위치, 형세, 기후 등 자연 사항도 경제적 사항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상업의 발달 조건을 각 하천의 수운과 연계시켜 유 · 불리를 논술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② 지리학 소개

다음으로 지리학을 소개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크게 지리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한 것과 한국지리 및 세계지리 지식을 소개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기사들은 소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알기 쉬운 상식 또는 개론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한 것으로 최생의 '지리학 잡기', 윤정하의 '상업지리학', 장응진의 '교수와 교과에 대하야' 가 있는데, 앞의 지리학에 대한 정의에서 상술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한국지리 소개에는 유근의 '대한지지', 현은의 '지지', 김하정의 '대한신지

리학' 이 속하며, 나머지는 세계지리에 대한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먼저, 지지형식을 빌어 한국지리를 소개한 것으로서 강역, 국호, 위치, 산경, 수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근(1907)의 '대한지지' 는 산경과 수경을 소개한 것으로 국내에서 으뜸이 되는 12산과 12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은(1908)은 그의 글, '지지' 에서 단군조선의 강역을 비롯한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한, 삼국의 강역을 기술하고 있다. 후자의 글은 우리나라 강역에 관한 역사지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로써 두 편의 기사는 지지의 내용이나 기술 방식에서 산수와 강역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지와 별 차이가 없어 기존의 지리지에서 인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김하정(1908)의 '대한신지리학' 은 우리나라의 명칭, 즉 국호의 변천과 반도국의 위치 및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재가 끊어져 이후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세계지리를 소개한 것으로서 대륙 또는 국가에 관한 지지로부터 태양계 등을 다루는 수리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과 스케일로 소개되고 있다. 한명수(1907)의 '외국지리' 는 5대주에 관한 지지인데, 맨 먼저 아시아 주의 지세와 기후를 약술하고 이 주를 지나, 노국영지, 영국영지 등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는 또 '외국지리' 의 연장으로서 '지나지리' 를 2회(제8호, 제10호)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중국에 관한 이 지리는 지세, 해안, 국도와 각 지역 및 도시를 기술하고, 또 주민, 언어, 종교, 정치, 군사, 교육에 관해 언급하다가 중단되었다.

심의성(1907)의 '역사급지리의 개론' 은 유길준의「서유견문」제1편의 '6대주의 구역' 을 번역하여 간추려 옮겨 실은 것으로서, 앞의 지리학 분류에 의하면 정치지리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고, 그 각 반구에 속한 대륙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 각 대륙에 속한 국가를 표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학해주인(1908)의 '실업지리' 는 지구총론, 세계의 인구, 세계의 인종, 세계의 언어, 세계의 종교, 각국의 영역. 세계의 주요 물산, 세계의 무역, 세계의 교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구총론은 자연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원형의 구인 지구는 하나의 행성으로 그 표면은 육과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에는 6대주가, 수에는 5대양이 있다는 것과 또 지구 표면의 기후는 열대, 온대, 한대 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수록하고 있다. 이 총론은 실업지리를 연구함에 있어 자연지리가 기본적인 사항임을 나타내 주는 항목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실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최생(1907)의 '지리학 잡기' 에서는 지리학이라는 학문과 동시에 수리지리, 즉 천문지리가 소개되고 있다. 즉 지구의 성인, 태양계의 태양, 대유성, 소유성, 혜성, 유성, 운성에 대하여 표와 그림을 이용해 수리지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원유객(1908)의 '지리학' 은 수리지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지구의 형상과 크기' 라는 제목 하에 지구가 타원체인 증거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서유견문」의 것과 유사한 것이다. 연구생(1907)의 '지문학 강담' 은 지문을 소개한다고 하고서 지구가 타원체임을 증명하고 지구의 자전만을 언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리지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백양산인(1909)의 '지리학' 은 자연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海)의 운동과 풍향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해의 운동은 파랑, 조석, 해류에 의해 발생하며, 각각 파랑은 해수의 표면이 바람에 의해 승강하는 운동이며, 조석은 태양과 달의 인력에 기인하여 일정한 시간에 해수의 간만을 일으키는 해수 운동이고,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운동임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해류와 바람의 발생원인 및 무역풍 · 해륙풍을 언급하고 있다. 여생(1910)의 '지문학 문답' 에서도 지구의 3권(기권, 수권, 암권)을 언급하고, 대기의 성분, 대기의 온도, 기압, 대기의 운동(바람), 대기 중 수분 등 기후학에 관해 문답형식으로 자연지리를 상술하고 있다.

홍주일(1909)의 '지문학' , 박정동(1908)의 '지문약론' , 홍정유(1909)의 '지문문답' 은 기사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문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의 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주야, 주야의 장단, 기후대, 계절에 대한 설명과 또 편마암, 사암, 화강암 등 지각의 발달을 언급하고, 지질시대에

따른 화석을 표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홍주일). 또 우주, 유성, 지구의 공전, 지각과 지질시대별 화석, 날짜변경선, 시차를 언급하고 있고(박정동), 태양계, 경위도, 사계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홍정유).

이처럼 세계지리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리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로 이어지는 지문학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지리학의 연구 방법

① 계통 지리 방법

장응진(1907)의 글에서 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리학을 토지와 인류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이 정의에 기술되어 있듯이 자연과 인문의 관계라는 연구 방법으로 지리학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계속되는 글에서 보다 자세한 두 가지의 계통 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特히 人類生活의 狀態는 一 一이 自然的 狀態의 影響을 被치 아님이 無ᄒᆞ니 人類生活을 理解코져 ᄒᆞ면 此等 互相의 關係를 攻究치 아니치 못ᄒᆞᆯ거시오. 또 自已의 生活ᄒᆞᄂᆞᆫ 地方及自國의 政治經濟上의 狀態와 自國이 外國에 對ᄒᆞᆫ 地位等은 此를 他地方 他國土의 比較對稱으로 因ᄒᆞ야 明覺ᄒᆞᆯ을 得ᄒᆞᄂᆞ니(장응진, 1907)

여기서 보면, 인류 생활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 인류 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둘, 즉 자연과 인류생활의 상호관계를 연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자기가 생활하는 지방과 국가의 정치경제와 자국의 외국에 대한 지위 등은 이를 타 지방 · 타 국토와 비교대칭함으로써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기술하고, 또 지리적 현상을 타 지역과 비교하는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을 통해 지리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들은 당시 지리학 논술의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또 다른 예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악예의 '지리와 인문의 관계' 에서도 기사 제목이 말해 주듯이 반도 · 도서 · 대륙이라는 자연과 인류문명이라는 인문을 연관시켜 논술하고, 또 문명발달을 반도, 도서, 대륙간에 비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반도 · 도서 · 대륙이라는 세계적 스케일 내의 국가간에서도 이를 비교하여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후에 나온 김교신(1934)의 '조선지리소고' 에서의 지리학 연구 방법과도 닮은꼴이라고 하겠다.

또 윤정하(1908)의 '상업지리학' 에서는"상업적 활동에 관한 지상의 자연적 상태와 경제적 사항을 서술하고, 또 이의 관계를 연구하는"에서 자연과 인문의 관계라는 연구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필자는 우선 자연적 사항에 관하여 간단히 경제적인 고찰을 하고 난 후, 이것과 지상에 있는 경제적 사항의 관계를 고찰하는 순서로 지상에서 상업과 관계하는 제반 사항을 연구하였다. 그의 또 다른 글 '대한상업지리' 에서는 상업지리학의 연구 방법에 맞게 자연과 인문(상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는 지형과 상업의 관계[15], 하천과 수운의 관계[16]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홍주일(1909, 제3호)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도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大凡 天地間에 在ᄒᆞᆫ 物이 一物도 不變不軌ᄒᆞᆷ이 無ᄒᆞ고 四季晝夜의 區別과 山川湖海의 狀態로붓터 風雨霜雪의 變化와 動物植物의 分布에 至히 千變萬化가 極多 無限ᄒᆞ나 深精 研究ᄒᆞ면 其間에 自然히 一定ᄒᆞᆫ 法則이 有ᄒᆞᆫ지라. 此 法則은 人文의 發達과 最密接ᄒᆞᆫ 關係가 有ᄒᆞᆫ 故로 實노 人文上 研究를 欲望ᄒᆞᄂᆞᆫ 者 必 先히 地文學의 研究를 不可不要ᄒᆞᆯ지라.

요컨대, 학보에 나타난 지식인의 지리학은 자연과 인문의 관계, 타 지역과 비교라는 연구 방법을 쓰고 있었다. 자연과 인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인류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과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며, 타 지역과 비교는 연구 지역에 대한 폭넓은 귀납법적 경험연구를 전제하고 있는 방법이다.

② 지지 기술 방법

장지연(1906)의 '지리' 는 후에 나온「대한신지지」의

일부분으로서 지지 형식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17](위치, 경계, 면적, 길이 등)을 언급하고, 다음으로 강역의 연혁을 거론하고 있으나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게재가 중단되었다. 그리고는 인문지리로 넘어가 인종과 족제(族制)를 논하였다. 부분적으로 기술한 지지이기는 하나 자연을 기술하고 난 다음, 인문을 기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 학해주인의 '실업지리' 역시 지구총론에서 수리 및 자연의 지문지리를 언급하고, 실업과 관계 깊은 인구, 인종, 언어, 종교, 국가영역, 물산, 무역, 교통 등 세계의 인문지리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한명수의 연재 기사 '외국지리', '지나지리' 에서도 지세, 기후를 약술하고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을 언급하여 지문학 다음 인문지리라는 기술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수리지리 또는 자연지리를 기술하고 난 다음, 인문지리를 언급하는 지지 기술의 방법은 당시 널리 알려진 일본 지문학의 구성방식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 헤트너의 지지 도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는 또 자연과 인문의 연관성을 밝혀 통합체로서의 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는, 즉 자연과 인문을 '종합' 하는 지지 기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기타 지리 방법

기타 지리 방법이란 지리학의 분류상 계통지리 또는 지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지리학의 연구방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기사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는 지리 지식을 그 시대의 특성에 맞게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했던 조선시대 지리지의 전통을 간직한 기사도 있었는데, 12산경과 12수경을 기술한 유근의 '대한지지' 와 대한강역지로서 고문헌에 근거해 강역연혁을 시대 순으로 기술한 현은의 '지지' 가 그것이다. 그리고 김하정, 심의성, 원유객, 백양산인의 글들에서는 각각 한국지지, 세계지지, 수리지리, 자연지리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었으나 특정한 지리학의 방법을 도출해 내기 힘들었다. 이는 이 기사들이 지리 논술이 아니라 지리 소개에 치중하고 있으며, 또 국내와 일본의 저술에서 일부분을 발췌 또는 요약하여 게재하고 그것도 한 두 번의 게재로 중단되어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21세기 지리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문답형식과 강담형식의 지리 기술 방법도 있었다.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문문답', '지문학문답', '지문학강담' 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답형식은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며, 강담형식은 의사전달에 호소력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애국계몽기에 어울리는 글쓰기 방법이었던 것 같다.

④ 서구 지리학과의 비교 검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지리학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헤트너(A. Hettner; 1859~1949)와 블라쉬의 제자였던 프랑스 지리학자 마르똔느(Martonne; 1873~1955)의 지리학 연구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애국계몽기 지식인들이 논술 또는 소개한 지리학의 연구 방법(계통지리, 지지 기술)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헤트너에게 있어서 지리학, 특히 지역 연구의 경우, 단위 지역을 정의해 놓고 자연이 인간생활을 규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지의 연구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난 후 인문현상을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지지연구의 개요를 보면 위치, 지질, 지형, 기후, 식생, 천연자원, 취락발달과정, 인구분포, 경제형태, 교통로, 정치적 구분 등의 주제 순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인과관계의 연속적인 형태 속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연 및 인문 현상을 지역들 간의 경험적인 비교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이희연, 1991, 200~203).

블라쉬의 제자였던 마르똔느는 지리학 연구 방법상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 즉 분포의 원리, 일반지리학의 원리, 인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분포의 원리는 라첼에 의해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이 원리의 중요성은 지도에 있다. 지리학과 지도학이 동의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연구결과가 지도로 표현될 때 그 연구는 지리학적인 색채를 띤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일반지리학의 원리는 리터와 블라쉬에 의해 강조된 것으로, 어떤 현상을 지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현상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지역과 비교 연구하는 원리로서 해석되는데, 이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넓은 범위에 걸친 지식이 요구된다. 셋째 지리학적 방법의 제3의 원리는 인과의 원리로서, 개개의 현상을 검토하는 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그 분포를 규정하고 있는 원인에까지 소급하고, 또 그것이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암, 1998, 289-291).

이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두 학자 헤트너와 마르똔느의 지리학의 연구 방법에서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학보 기사에 드러난 지리학의 연구 방법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즉 타 지역과의 비교 연구, 자연과 인문의 인과관계 연구라는 계통 지리 방법과 또 헤트너의 지지 기술 방법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보 지리학의 주요 저술에 적용된 연구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터, 헤트너, 블라쉬, 마르똔느 등 서구 지리학자의 근대 지리학의 연구 방법이 일본으로, 또 일본에서 20세기 초 지식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애국계몽기, 일제강점기의 근대 지리학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오늘날의 지리학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4. 맺음말

훔볼트와 리터 이후 19세기의 마지막 30년간에 서구에서는 지리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 또는 국가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라는 말처럼, 물고 물리는 국가간 경쟁에서 자국의 애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식민지 경쟁에서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식민지 확장과 그에 따른 교통수단의 발달은 세계지식의 대폭적인 확장을 가져다주어 지리학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계속해서 대륙 및 해양 탐험과 함께 참신한 지리학서가 출판되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지형도가 작성 · 간행되었으며, 지리협회가 발족하고 대학에 지리학과가 창설됨[18]으로써 지리학의 발전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정암, 1998, 285-288). 다시 말해 넓은 지역, 즉 다른 지역의 지리 정보를 이전보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근대에 와서 이러한 지리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약소국은 이러한 세계정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적극적인 개화를 하여 식민지화 될 운명에서 식민지 지배국으로 변신하였다. 구한말 특히 애국계몽기는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식민지로 삼았던 시기이다. 지리학을 다른 지역의 지리정보를 경험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여겨 열강에서는 지리학이 정식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시기이다.

애국계몽기 지식인들도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강해야 한다는 의식이 충만해져 적극적으로 근대 문물을 도입하여 교육을 진흥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지리학이며, 지리학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애국심 고취와 세계적 지식의 학습에 있어 단연 으뜸이 되는 학문이었기에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지식인들의 이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이에 각종 학회가 발행한 학보에 지리학을 논하고 소개하였던 것이다.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은 말 그대로 애국계몽의 지리학이었다. 그것은 적자생존의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식이었다. 이 지식이 자강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열강들의 경험으로 확인된 상태여서 어찌하던지 간에 부국강병의 모델을 열강에서 찾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근대' 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런 열강의 것들을 지식인들이 받아들이려 하였다. 근대는 우리나라보다 이웃한 일본이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먼 서구보다 가까운 일본의 지리학을 그대로 옮겨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지리학은 서구 지리학의 번역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학자의 저술조차도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애국계몽기 학보에 실린 지식인의 지리학은 주로 한말 일본 유학생에 의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서구 근대지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애국계몽기 지식인들이 학보에 실은 지리학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지리학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아 수리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 등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즉 행성으로서의 지구와 지구 표면의 자연 현상, 그리고 인문 현상을 다루는 지문학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지리학이었다.

두 번째, 지식인들은 국민계몽을 위해 이런 지리학을 학보의 지면을 빌어 논술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소개하고 있었다. 세계적 지식을 담고 있는 지리학을 소개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대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과 산경 · 수경을 강조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려 하였다. 또한 학보에서의 상업지리학의 등장은 실업을 진흥하려는 지식인들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세 번째, 애국계몽기 지식인, 특히 지리학을 논한 악예, 윤정하의 지리학의 연구 방법으로 자연과 인문의 인과 관계, 타 지역과의 비교라는 연구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자연 현상에 토대한 인문 현상의 지리적 연구,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한 지역간의 연관성 연구 등이 단위지역을 하나의 통합체로 보았던 칸트 이후, 리터, 헤트너, 블라쉬로 이어지는 연구자의 핵심 방법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식인들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지리를 논하였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의 내용 구성 방법 특히 지지 기술 방법은 자연을 서술하고 난 후, 인문을 서술하는 전통적인 헤트너의 지지 도식이었다. 태양계에서의 지구, 지구의 표면과 그 자연 현상, 그리고 거기에 결부되어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산물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순서대로 기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즉 태양계로부터 지구를 거쳐 인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註

1) 애국계몽기 당시 학부에서 제시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사 방침도 이런 사실을 잘 대변을 주고 있다(필자미상, 1909, 43).

2) '학보' 라는 명칭은 학회에 따라 '월보', '회보' 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모두를 '학보' 라고 통칭하였다.

3) 학보의 지리학 관련 기사 검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http://kuksa.nhcc.go.kr/)〉한국사데이타베이스〉연속간행물〉한국근현대잡지자료에서 1905~1910년의 학보 기사 제목을 '지리', '지지' 또는 '지문' 으로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검색의 대상이 된 학보는 대한자강회월보(1906.7~1907.7), 대한협회회보(1908.4~1909.3), 서우(1906.12~1908.5), 서북학회월보(1908.6~1909.7), 기호흥학회월보(1908.8~1909.7), 태극학보(1906.8~1908.11), 호남학보(1908.6~1909.3), 대한학회월보(1908.2~1908.11), 대한유학생회학보(1907.3~1907.5), 대한흥학보(1909.3~1910.5), 대동학회월보(1908.2~1909.9) 등이다.

4) 일본은 1904년 노일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학보' 지식인들은 일본을 서구열강과 같은 문명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다(조현욱, 1995, 91-93).

5) 박노자(2005, 265)도 사회진화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나타난 시점을 1900년대(특히 1904년 이후)로 보고 있다.

6) 조항래 편저, 1993,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울. 참조

7) '지리학 잡기' 를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실은 최남선도 중인계급 출신의 지식인이었다(권정화, 1990).

8) 지리, 지지 또는 지문 외에도 내용상 지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김하구, 1909, "농촌과 도회를 논홈," 대한흥학보, 5, 10-16. 필자미상, 1910, "교통과 세계적 문명," 대한흥학보, 11, 52-55. 최남선, 1907, "혜성설," 대한유학생회학보, 1, 39-46. 학불염생(역), 1907, "지구지과거급미래," 대한유학생회학보, 1, 40-50. 학불염생(역), 1907, "지구지과거급미래," 대한유학생회학보, 2, 64-70. NS生(역), 1907, "인류의 기원급발달," 대한유학생회학보, 3, 66-75. 박은식, 1907, "평양과 개성의 발달," 서우, 9, 1-4. 문일평, 1909, "아국 장래 상업의 중심지," 대한흥학보, 8, 4-7.

9) 장지연은 1906년 대한자강회 월보에 게재한 '지리' 의 내용을 일부 수정 · 보완하여 1907년에 발간된 그의 책「대한신지지」의 지문지리와 인문지리 편에 실었다. 따라서 본 서문은 장지연의 지리학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한다.

10)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지리학이 국민국가의 이념을 강화시키고 전파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교역과 국가 발전의 경제적, 정치적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는 데에도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권용우 · 안영진, 2001, 98). 이런 생각은 장지연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1) 일제 강점기에 나온 김교신의 '조선지리소고'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12) 今此 地理學은 如何ᄒᆞᆫ 科學에 隷屬되고 如何ᄒᆞᆫ 分戶가 有ᄒᆞ뇨ᄒᆞᆯ딘딕 多言ᄒᆞᆯ 것업시 理學의 一分身으로 更히 如左ᄒᆞᆫ 分學이 有ᄒᆞ니(최생, 1907, 46)

13) 홍주일(1909, 제3호)은 지문을 '지구와 기타 제천체간 관계, 그리고 지구상의 천연적 제현상을 논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14) 지세에서는 인구, 물산, 상업에 미치는 지형의 영향을 말하고, 수계에서는 하천 유역의 농경지와 가항 구간을 언급하여 농업과 무역의 발달이 하천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5) 地勢上으로 如斯ᄒᆞᆫ 東西의 差別가 有ᄒᆞᆷ과 갓치 人文地理上에 在ᄒᆞ야도 또ᄒᆞᆫ 兩面의 差異가 甚ᄒᆞ야 西部ᄂᆞᆫ 東部보다 人口가 稠密ᄒᆞ고 物産이 豊富ᄒᆞ고 商業이 殷盛ᄒᆞᆷ을 可히 測知ᄒᆞᆯ지라(윤정하, 1908, 27-28).

16) 鴨綠江은 國中의 最大最要ᄒᆞᆫ 江인ᄃᆡ 源은 白頭山의 西麓에셔 分流ᄒᆞ야 豆滿江과 背流ᄒᆞ고 初에ᄂᆞᆫ 南下ᄒᆞ다가 後에ᄂᆞᆫ 西流ᄒᆞ야 無數ᄂᆞᆫ 小流ᄅᆞᆯ 合ᄒᆞ고 또 滿洲셔 流來ᄒᆞᆫ 바 渾河의 大流와 會ᄒᆞ야 水量이 大增ᄒᆞ야 其 下流 卽 昌城以下ᄂᆞᆫ 兩帆船이 無難히 出入ᄒᆞᄂᆞᆫᄃᆡ 此 江의 全長이 凡 一千 三百里에 達ᄒᆞ야 貿易의 江河로ᄂᆞᆫ 價値가 大ᄒᆞ다 謂ᄒᆞᆯ지오 또 江의 上流에 有名ᄒᆞᆫ 森林이 有ᄒᆞ야 無限ᄒᆞᆫ 富源이 包藏된 바ᄂᆞᆫ 外人의 大流涎ᄒᆞᄂᆞᆫ 處이라(윤정하, 1909, 20).

17) 그의 책 「대한신지지」에서는 '지문지리(地文地理)'에 속한 내용이다.

18) 서구에서는 1880년대에, 일본에서는 1900년대에 대학에 지리학과가 창설되어 본격적인 지리학자의 양성이 이루어졌다.

文獻

1. 자료

大韓每日申報 1905年 12月 5日字 論說 '信敎自强'

金夏鼎, 1908, "大韓新地理學," 畿湖興學會月報, 제3호

朴晶東, 1908, "地文略論," 畿湖興學會月報, 제1~4호, 제6호

白陽山人, 1909, "地理學," 大東學會月報, 제12호

沈宜性(譯述), 1907, "歷史 及 地理의 槪論," 大韓自强會月報, 제11호

岳裔, 1910, "地理와 人文의 關係," 大韓興學報, 제10~11호

麗生, 1910, "地文學問答," 大韓興學報, 제11호

研究生, 1907, "地文學講談," 太極學報, 제13~14호

研究生, 1908, "學問의 目的," 太極學報, 제17호

遠遊客, 1908, "地理學," 大東學會月報, 제8호

柳瑾(抄譯), 1907, "大韓地誌," 大韓自强會月報, 제11~13호

尹定夏, 1908, "商業地理學," 西北學會月報, 제7호(12월)

尹定夏, 1908, "大韓商業地理," 西北學會月報, 제7호(12월)

尹定夏, 1909, "大韓商業地理," 西北學會月報, 제8호(1월)

張志淵, 1906, "地理," 大韓自强會月報, 제3~5호

崔生, 1907, "地理學 雜記," 大韓留學生會學報, 제2호

筆者未詳, 1906, "本會趣旨書," 西友, 제1호

筆者未詳, 1909, "敎科書의 內容에 관한 調査," 畿湖興學會月報, 제12호

學海主人, 1908, "實業地理," 太極學報, 제20호

韓明洙, 1907, "外國地理," 太極學報, 제6~7호

韓明洙, 1907, "支那地理," 太極學報, 제8호, 제10호

玄檗, 1908, "地誌," 大韓協會會報, 제1~8호(4~11월)

洪正裕, 1909, "地文問答," 畿湖興學會月報, 제11~12호

洪鑄一(譯), "地文學," 大韓興學報, 제3~6호

2. 단행본과 논문

권용우 · 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서울.

권동희, 2004, "최남선의 지리사상과 '소년'지의 지리교육적 가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219-228.

권정화, 1990, "최남선의 초기 저술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관심," 응용지리, 13, 1-34.

김인곤 외, 1992, "한말 국권회복 계몽운동연구," 경북대논문집(인문 · 사회과학), 52, 53-72.

박노자, 2005,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서울.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상, 선인, 서울.

윤경로, 1996, "서구 근대문명의 수용과 애국계몽운동," 근대문명과 한국근대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이은숙, 1996, "김교신의 지리사상과 지리학 방법론-조선지리소고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8, 37-51.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서울.

장보웅, 1976,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 41~58.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 서울.

정암(역), 1998, "지리학의 본질과 과제," 근대지리학의 개

척자들, 한울, 서울(데즈카 아키라(편), 1991, 地理學の古典, 古今書院, 동경. Hettner, A., 1905, "Das Wesen und die Methoden der Geographie," *Geographische Zeitschrift*, 11, p.545ff.).

조항래(편저), 1993,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서울.

조현욱, 1995,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Ⅰ)," 한국학연구, 5, 47-97.

허경진(역), 2004, 서유견문, 서해문집(俞吉濬, 1895, 西遊見聞, 交詢社).

홍일식, 1977, "한국 개화사상의 연원고," 어문논집, 19-1, 779-94.

교신: 강순돌, 440-2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 28-1, 경기과학고등학교(이메일 : soondols@chol.com, 전화: 031-259-0419)

Correspondence: Soon Dol Kang, Gyeonggi Science High School, 28-1, Songjuk-Dong, Jangan-Gu, Suwon 440-210, Korea(e-mail: soondols@chol.com, phone: 031-259-0419)

최초투고일 05. 10. 11
최종접수일 05. 11. 28